인 사 말

이 병 훈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OECD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지표를 점수로 산정해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합니다. 이중 건강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지표는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있는데 하나는 일반적 건강상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자기보고 건강상태(Self-reported Health)'입니다. 한국은 '기대수명'에서는 36개국 중 10위의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자기보고 건강상태'에서는 꼴지를 차지하여 전체 건강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스스로는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건강염려증(Illness Anxiety Disorder; Hypochondriasis)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유난히 민감한 수준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식품/화학제품의 체계적 관리 미숙으로 많은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선진화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가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적극적인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입니다. 2년 전 정부는 달걀 살충제 관련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불신에 따른 극심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당장 달걀을 먹여도 될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의 정서는 무시한 채 과학적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위해정보교류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사이언스의 영역이라기보다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나가는 감성적 기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회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인적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결과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위해정보의 적극적 교류활동'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정보지가 이런 우리의 노력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